

'54년만에' 신안에도 경찰서 생겼다

정부 건의 8년여만에... 행정성·직원 관사 등 기반 시설 추가 확충 1실·4과·15개 파출소 170명, 유인도 등 1025개 섬 맞춤형 치안

신안군과 주민들이 지난 2007년 '신안경찰서 유치위원회'를 결성한지 16년만에 신안경찰서가 문을 열었다.

그동안 신안은 면적이 서울시와 비슷하고 1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수성에도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었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안군 암태면에 건립된 신안경찰서에서 개서식이 열렸다.

개서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종호 전남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국회의원,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군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신안군은 육지 면적이 654.34㎢로 서울(605.24㎢)과 비슷하고 14개의 읍·면에서 3만 8000여 명의 주민이 산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25개의 섬이 있으며 이가

운데 유인도는 72개에 달하지만 단독 경찰서가 없어 목포경찰서에 배속된 15개 파출소 90여 명의 인력이 치안을 맡고 있었다.

파출소 경찰관은 거주민이 많은 순으로 배치되는데 불과 1~2명만 근무하는 곳도 있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신안에서는 학부모 등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과 염전노동력 착취 사건 등 간혹 강력범죄가 발생했지만, 단독 경찰서가 없어 허술한 섬 지역 치안문제가 항상 도마에 올랐다. 이에 신안경찰서 개서는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했다.

신안경찰서 신설이 그동안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15년 전남경찰청이 정부에 건의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거쳐 올라갔으나 '책상머리' 한계를 넘지 못했다.

예산이 걸림돌이었고, 치안 수요가 뒤진다든가 이유로 수도권이냐 대도시에 순서가 밀리고 만

것이다.

이에 지난 2016년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이 적극적으로 신안경찰서 건립에 나섰다.

결국 지난 2017년 1월 신안경찰서 건립에 들어가 6년만인 올해 5월 완공(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7841㎡)이 됐고 4일 개서식을 갖게 됐다.

신안경찰서 개서는 신안군이 무안군과 분리된 1969년 이후 54년 만이며, 1992년 문을 연 광주남부서 이후 31년 만에 광주·전남에 신설된 경찰서다.

3급지인 신안경찰서는 1실(112), 4과(경무·수사·생활교통·정보안보의사), 15개 파출소로 구성됐다.

정원은 총 170명(본서 68명, 파출소 102명) 중 현재 161명이 근무를 시작했다.

목포경찰서로부터 21t급 행정선을 인수한 신안경찰서는 다른 행정성, 직원 관사 등 추가로 치안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안경찰서 개서식에 참석한 윤경찰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남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던 신안군에 경찰서가 생김으로써 치안 서비스가 한 차원



윤희근 경찰청장, 이종호 전남경찰청장 등이 4일 신안군 암태면 신안경찰서에서 열린 개서식에 참석해 경찰의 상징인 침수리 제막을 하고 있다.

높아지고 주민의 일상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실력 있고 당당한 치안 활동으로 안전한 신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안경찰서 1호 접수 사건은 '실종 사건'으

로, 경찰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40대가 사업 실패와 가정불화 등으로 실의에 빠져 정처 없이 바닷가를 배회하는 것을 확인해 집으로 인계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수능 킬러문항 배제 찬성...전남 수험생에 도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학생 맞춤 컨설팅 등 교육력 향상 위해 최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된다면 전남 입시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4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킬러문항이 배제돼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한다면 전남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입장에 찬성하며 근본적으로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학생들의 교육력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교육력이 기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며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5개 시에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세워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컨설팅을 통해 교육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학습을 학생의 진로와 일치시킴으로써 전남의 아이들을 지역과 대한민국의 인재

로 키울 것”이라며 “전남의 작은학교가 미래교육의 모델이 되고, 전남교육이 우리 지역의 미래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작은학교 육성을 위해 ▲학생 사고력 함양 교육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 ▲글로벌 교육 강화 ▲학생 참여형 공생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남교육청은 이와 같은 미래교육 방향과 선도적 모델을 공유하고 알리기 위해 내년 5월 교육부와 함께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 교육 박람회’를 전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스트 총장에 임기철 전 KISTEP 원장 선임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제9대 총장에 임기철(68·사진)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선임됐다.

지스트 이사회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제9대 총장에 임기철 전 원장을 선임했다.

임 총장은 서울대 공업화학학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기획조정실장과 부원장 등을 역임했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 제8대 원장을 맡았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부회장,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를 지냈다.

임 총장은 교육부장관 동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4년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1.5도시’ 체험 진행

광주기상청 등 8개 기관

광주지방기상청, 한국환경공단, 광주에너지파크 등 기후변화·탄소중립·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8개 기관이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탄소중립생활 실천을 장려하는 ‘2023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1.5도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탄소중립생활을 실천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낮추는데 기여하는 도(전남)·시(광주)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8개의 체험기관을 방문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체험활동을 한 뒤 스탬프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체험활동에는 에코백 만들기 체험, 친환경 이끼화분 만들기 체험 등이 있고 이동시 승강기 대

신 계단 이용하기, 비닐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등의 일상생활 속 실천가능한 임무도 주어지게 된다.

체험기관은 공동 운영기관인 ▲광주지방기상청 ▲담양에코센터 ▲한국환경공단(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광주에너지파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전남신재생에너지홍보전시관 등 8곳이다.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은 광주지방기상청 등 공동 운영기관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장원 광주지방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교육청 “나이스’ 오류 해결 적극 나설 것”

대책팀 꾸리고 현장 지원 등

광주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서비스’(NEIS·나이스) 오류(7월 4일자 광주일보 6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4일 학교 현장에서 각종 애로가 잇따랐던 나이스에 대해 안정화 대책팀을 꾸리고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오류 및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콜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에도 해결이 어려울 시 현장 지원에 나선다.

또 응용 SW 오류 건에 대해서 교육부에 적극 개선 요청을 할 계획이다.

앞서 나이스는 개통 첫날부터 로그인 안 되는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해 각종 비판을 받아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교사와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학교의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나이스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안정화 대책팀을 꾸려 신속히 대응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사회적경제기업 전시·박람회

광주 서구, 14일까지 기업 모집

광주시 서구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서구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등이다. 오는 8월부터 12월 사이 국내에서 열리는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려는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참가 기업에게는 박람회, 전시회, 장터 등의 참가비용과 부스 임차료, 홍보비 등 기업당 최대 170만 원을 지원한다.

오는 14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전화(062-360-7166)로 문의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